

정부 이공계 육성정책 풍선효과... 반도체학과 선호도 급증

수시모집 반도체학과 경쟁률 증가
정부 정책 의한 유행성 열풍 우려
학생 진로선택 혼선 야기 등 지적

2023학년도 수시 지원분석 결과 반도체 관련학과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하면서 정부의 이공계 집중 육성정책이 수시모집 선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시장, 정부 정책 등에 휩쓸려 수험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입시 전문 업체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학과의 지원자 수가 서울, 수도권, 지방권 차이 없이 평균 경쟁률이 모두 상승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가들이 정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반도체 관련학과는 지역에 차등 없이 경쟁률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권 소재 반도체 관련학과는 지난해 17.6대 1에서 올해 18.1대 1로 상승, 수도권은 6.8대 1에서 8.6대 1, 지방권 반도체 관련학과는 3.8대 1에서 5.1대 1로 올랐다.



반도체 공정장비 실습 모습.

/경남정보대

다만 반도체학과의 부상이 정부 정책에 의한 유행성 열풍이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학과는 미래사업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이 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학과 열풍은 아이들의 진로 선택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 장기적인 시각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가장 큰 걱정은 지금 입학한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할 때, 정말 일자리가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줘야 된다"며 "막상 아이들이 졸업할 때 일자리가 없다면 정말 큰일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깊은 협의 같은 것들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

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부족 원인에 반도체학과생들의 전공 이탈이 꼽힌다. 김사라은경 서울과학기술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의 제조 라인인 세밀한 과정이 많기 때문에 신뢰성 평가 등의 세부적인 부분이 일반 제조 라인보다 더 까다롭고 어렵다"며 반도체 인재들의 이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탈자가 많다는 것은 반도체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하기도 한다. 현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첨단 반도체 기술을 교육할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고 최신 기술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집중 육성정책에 따라 유행처럼 늘어난 학과 신설·모집 풀림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과 같은 상황을 되풀이할 수 있다. 당시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과 지원자가 상승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련 정책에 소홀해지면서 직업

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줄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과는 이번 2023학년도 수시 지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반도체 관련 학과에 대한 육성정책 방향에 따라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전국 31개대 중 경쟁률을 공개한 30개대 반도체 관련학과 지원자 수가 지난해 6322명에서 금년 9926명으로 3604명으로 지난해 대비 57.0%p 수준으로 증가했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은 반도체 관련 신설학과가 11개대 개설돼 분산됐음에도 전체 경쟁률이 지난해 8.6대 1에서 9.6대 1 상승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특히 신설 10개대(한국과학기술원 제외) 경쟁률은 305명 모집에 3428명 지원해 1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관련학과 전국 최고 경쟁률은 성균관대 눈물우수 반도체시스템공학과로 163.9대 1이다. 다음으로 서강대 눈물시스템반도체공학과 155.7대 1, 아주대 눈물우수자 지능형반도체공학과 45.0대 1 순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대입수시 경쟁률, 서울·지방 격차 더 벌어져

경쟁률 격차 최근 3년 중 가장 커
지방권 경쟁률 6대 1 밑으로 '뚝'

2023학년도 전국 지역별 경쟁률 분석 결과 서울권과 지방권 소재 수시 경쟁률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연속 격차가 커지는 상황으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방대학 살리기'와는 상반된 기조로 흘렀다.

20일 입시 전문 업체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대학의 경우 2022학년도에 비해 선발인원은 감소했지만 지원 인원은 증가해 전체 경쟁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지원자 3만2799명 더 몰리고, 지방권 소재 대학은 3만1458명 크게 감소하면서 오히려 지방대 육성정책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주목되는 점은 2023학년도 수시모집 결과가 3년 간의 전국 208개 4년제 대학 수시지원 집계결과 중 서울과 지방권 경쟁률 격차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2021학년도에는 서울권 14.67대 1, 지방권 5.67대 1로 8.99대 1, 2022학년도

에는 서울권 16.01대 1, 지방권 6.04대 1로 9.98대 1 격차였지만 2023학년도에는 서울권 경쟁률 16.85대 1, 지방권 5.72대 1로 격차 11.13대 1 격차의 오펜세를 유지했다.

지방권 경쟁률은 지난해 6.04대 1에서 5.72대 1로 기록하면서 다시 6대 1 밑으로 떨어졌다. 종로학원은 수시 6회 지원을 감안했을 때, 지방권 소재 평균 경쟁률은 미달 상태로 재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국에서 6대 1 미만 대학은 96개 대학으로 이중 지방권 소재 대학이 77개 대학이다. 6대 1 미만 대학 자체도 지난해 88개 대학에서 96개 대학으로 증가한 수치다. 다만 교대, 카이스트 등 특수목적대의 6대 1 미만은 제외했다.

지방권 소재 대학 중 경쟁률 높은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등 상위권 지거국, 과학기술원 등 특수대, 연고대 등 주요대 제2캠퍼스에 집중됐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지방대학은 1위 경북대 16.24대 1, 2위 부산대 13.53대 1, 3위 연세대 미래 10.79대 1 순이다. 전국 1위

는 중앙대 29.07대 1, 2위 성균관대 28.53대 1, 3위 경희대 27.30대 1, 4위 서강대 27.15대 1, 5위 한양대 26.43대 1이다.

특히 가천대, 동국대, 동덕여대, 아주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등은 선발인원이 증가 또는 전년도와 동일했음에도 지원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해 경쟁률이 상승했다. 더불어 광운대, 세종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성균관대, 인하대, 한양대(에) 등에서는 선발인원이 다소 축소되긴 했으나 지원 인원이 크게 상승해 경쟁률이 유의미했다. 진학사는 전반적으로 중위권 정도 대학에서 경쟁률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사실상 지방권은 상위권 지방거점 국공립대, 연세대 미래, 고려대 세종 등에 집중되는 양상"이라며 "의약계열 지역인재 40% 선발의무, 지방대 육성 정책에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서울권, 지방권 소재 대학 경쟁률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라는 의견이다.

/신하은 기자



구미대 천무용원단, 치어리딩 챔피언십 대상

구미대 천무용원단이 제6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 '엑스포 유치 응원전! 유니브 치어리딩 챔피언십'에서 대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이번 치어리딩 챔피언십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렸다. 구미대 천무용원단은 이날 경연에 참가한 전국 25개 팀 가운데 최고상인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에게는 상장(문화체육부위원장)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구미대

원광디지털대 핀란드 탐페레 '세종학당' 개소

한국어·한국문화 수업 진행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지난 15일 핀란드 탐페레시에 위치한 레이쿠 컬처 하우스(Laikku Culture House)에서 한국과 핀란드 세종학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탐페레 세종학당을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성시종 원광학원 이사장, 원광디지털대 관계자를 비롯해 천준호 주핀란드 대사관, 탐페레 시청, 빔아트(VIMMART), ACCAC(Accessible Arts & Culture)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학당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 교육기관으로 탐페레 세종학당은 핀란드 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한국어 교육기관이다. 핀란드 남서부 피르칸마 지역에 위치한 탐페레 세종학당은 원광디지털대와 빔아트 예술학교가 공동 운영하게 된다.

탐페레 세종학당은 강의실, 자료실



(왼쪽부터) 천준호 주핀란드 대사, Jarmo Sko N 세종학당장, 이지연 한국어 교원이 탐페레 세종학당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광디지털대

등 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어 교원을 배치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관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공동 운영을 맡은 원광디지털대는 ▲현지 교육 운영 시스템 지원 ▲관련 교육자료 ▲교육 인프라 제공 ▲학생모집 및 입학 관리 ▲비자 취득 관련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신하은 기자

조희연 교육감, 학부모들 만나 정책 토론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일 오후 2시 학부모회장 100여 명과 함께 교육감과 함께하는 짹짹(100인 100분)한 이야기: 학부모 지원 정책 '다시봄, 바로봄, 내다봄' 서울교육 학부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학부모지원 정

책을 다시 보고, 바로 보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내다보기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장 100여 명과 함께 100분간 진행됐다. 교육주체인 학부모들과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지원 정책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그동안 참여하면서의 어려운 점, 문제점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서울교육 상

상원탁을 시작으로 현재의 서울교육 학부모 토론회까지 다양한 교육주체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정책 변화 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학부모회 지원사업 관련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의 참여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원탁에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하은 기자